DOI http://dx.doi.org/10.22143/HSS21.7.4.54

조선총독부 지역지배의 구조: 조선박람회(1929)와 전라북도*

Structure of the Local Rule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hosun Exhibition and Jeollabuk-do

이 정 욱**

접수일: 2016년 8월 16일, 수정일: 2016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27일

요약(Abstract): 본 연구는 1929년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의 구조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박람회의 개최 현황, 각 전시관의 분석, 전라북도관, 전라북도협찬회, 박람회 관람자, 수상품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조선박람회는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조선인, 조선총독부와 지역 일본인 권력에 의해 이중적인 지배구조에 얽매어 있는 전라북도민, 수리시설 등의 인프라 정비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성공적인 시험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전라북도를 확인하는 행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Key Words): 조선총독부(Government-General of Korea), 식민지(Colony), 조선박람회(Chosun Exhibition), 전라북도(Jeollabukdo)

---

*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361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Email: jukkoo@hanmail.net)

Ⅰ. 서론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수많은 근대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일본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일본의 식민지인 대만 등과 함께 32회나 참가했다. 조선에서는 조선수이출곡물공진회(1922), 조선수산품전람회(1928), 조선공업진흥전람회(1934) 등 각 산업별 박람회와 전라북도물산공진회(1914), 경성부생산품전람회(1926), 경북수산진흥공진회(1935) 등 각 지역별 박람회가 173회나 개최되었다. 이중,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시정20년 기념 조선박람회'(조선총독부주관, 경복궁, 1929.9.12.~10.31), '기원 2600년 시정30주년 기념 조선대박람회'(경성일보사 주최, 조선총독부 후원, 청량리역, 1940.9.1~10.23)는 지역별, 산업별 모든 분야를 망라한 가장 큰 대규모의 박람회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틀 속에서 개최된 '산업'디스플레이의 성격이 짙은 박람회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통해 계몽된 조선과 발전된 조선의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 물산 공진회, 192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제공황 속에서 조선의 발전상을 알리며 근대적 산업유치를 위해 기획된 조선박람회,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홍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아닌 신문사가 중심이 된 조선대박람회로 개최되었다(주윤정, 2003; 요시미 슌야, 2004).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과 공진회 및 박람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우선, 일본의 발전상과 대조해 조선의 낙후된 실상을 조선인 스스로 인식하며 내면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획된 공진회, 물질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을 침탈하기 위한 실험장, 박람회의 전시물은 식민지화된 객관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회지도, 조선박람회는 식민통치의 취약성과 식민지 경제구조의 이중성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최석영, 1999; 李泰文, 2003; 주윤정, 2003; 남기웅, 2008). 이들 연구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의도와는 달리 박람회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는 조선과 조선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박람회와 조선, 박람회와 경성, 부산 등 대도시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조선박람회의 개최 현황, 전시관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박람회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전라북도라는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에 조선박람회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전북협찬회, 박람회 관람객,

출품 등을 고찰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지역 지배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Ⅱ. 선정(善政)과 악정(惡政)

1929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는 교통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14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관람객이 조선 각지에서 전시장을 찾았으며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는 조선박람회의 의의를 조선총독부 시정 20년간의 통치 실적을 조선과 해외(일본)에 알리고, 일본은 물론 대만, 만주에서 출품한 물품과 조선 물품의 비교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조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피력하고 있다.[1] 또한 조선박람회에 참가하는 해외 관람객들에게, 조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산업경제 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했다.

사이토는 1919년부터 1927년까지 제3대 조선총독을 역임하며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시킨 인물이었으며, 박람회가 개최되기 1개월 전인 1929년 8월 17일 두 번째 조선총독(1929~1931)의 임무를 시작했다.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 이후의 조선 산업의 변화상을 홍보한 조선박람회는 사이토 총독의 1차 재임 시의 업적의 전시였다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총독으로서 첫 공식무대였다. 조선박람회 개최설이 사이토 총독의 1차 재임 시기인 1927년 2월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볼 때, 조선박람회 개최는 사이토 총독의 강력한 추진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할 수 있다(「朝鮮博覽會說 當局否認」, 중외일보, 1927년 2월 26일, 1면).

조선총독부와 사이토 총독의 시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한 조선박람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가 농업, 척식, 임업 등 총 13부로 구성된 반면 조선박람회는 농업, 임업, 화학공업 등 총 22부로 구성되었다.[2] 위생 및 자혜구제가 사회사업과

1) 조선박람회는 조선 내의 문화의 향상과 아울러 산업발달의 상태, 정치상 및 사회상, 기타 여러 시설을 한 곳에 전시하여 시정 20년간의 통치 실적을 내외에 천명하고, 장래의 진보에 바탕이 되고자 한다. 또한 널리 조선 이외에서 다수의 출품을 구해 비교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상호 소개에 편리하게 하고, 또한 이 기회에 내외 관람자를 유치하여 조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상호 협력하여 한반도의 개발과 국운의 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齋藤實, 1929).

2) **조선물산공진회**: 농업, 척식, 임업, 광업, 수산, 공업, 임시 은사금사업, 교육, 토목 및 교통, 경제, 위생 및 자혜구제, 경무 및 감옥, 미술 및 고고자료.
조선박람회: 농업, 수리·개간 및 개척, 임업, 광업, 수산, 식료, 방직공업 및 포백 가공업, 기계

보건위생으로 세분화된 측면도 보이지만, 조선물산공진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식료, 방직공업 및 포백 가공업, 기계 및 전기, 화학공업, 제작공업, 의장·도안 및 특허, 통신·교통 및 운수, 도량술, 육해군, 고무신 회사와 비료회사 등의 기업 전시관의 등장이 눈에 띈다. 이는 1920년대 후반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식민화, 군사력을 통한 식민지 영토의 확장이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시회를 상징하는 포스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보전달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기에 효과적인 매체인 포스터는 행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은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대표하는 포스터이다.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

시정 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1929)

<그림 1> 행사 포스터

조선물산공진회의 포스터(왼쪽)는 기생을 포스터 중앙에 배치해 조선의 전통적인 모습과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궁궐(상단)이 다소 어둡고 을씨년스럽게 그려진 반면, 일본의 식민지화로 인해 근대적인 건물로 탈바꿈한 식민지 조선의 중심 경성(조선)의 활기찬 모습(포스터 중앙)이 밝게 그려져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신구(新舊)의 비교와 대조는 조선물산공진회의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으며 모든 분야의 전시품 또한 한일강제병합 이전과 이후로 나눴다.

그렇다면 조선박람회의 포스터(오른쪽)를 통해 박람회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람회를 상징한 포스터는 총 250장의 응모작 중에 뽑힌 작품으로 전매국 인쇄공장의 한 직

및 전기, 화학공업, 제작공업, 의장·도안 및 특허, 통신·교통 및 운수, 토목 및 건축, 교육 및 학예, 도량술, 미술 및 공예, 사회사업, 보건 위생, 경제, 경무 및 사법, 육해군, 기타.

공(城勉一郎)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화를 상징하며 조선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잘 살린 청색, 흰색, 적색, 흑색, 황색의 오방색으로 처리된 포스터는, 화려함과 축제 분위기를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경회루와 근정전을 배경으로 중앙에는 일장기가 휘날리는 우뚝 솟은 선전탑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물산공진회 포스터가 행사 기간인 가을을 상징하는 단풍과 국화를 배치해 자연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면, 조선박람회 포스터는 조선 팔도를 대표하는 물품들을 원형으로 배치해 지역적·공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기계, 축산, 산림, 수산, 전기, 수출, 공장, 건물, 석탄, 쌀, 목재 등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배치한 포스터는 생활개선을 상징하는 이층문화주택, 산업화를 상징하는 톱니바퀴와 공장의 굴뚝, 전기와 문명의 상징인 전선과 전봇대, 수리조합과 토지개량으로 생산된 쌀과 가마니를 배치함으로써 식민통치의 발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장의 포스터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통치로 인해 발전된 조선, 희망찬 조선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의도와는 달리 식민통치하 조선인들의 움직임 또한 조선박람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조선박람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전시장 개장 시간이다. 조선물산공진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차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두 번에 걸쳐 개장한 반면, 조선박람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차례의 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20년대 후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야간개장으로 인한 전력의 소모 등 경제적인 조치의 일환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총독부 통치에 맞선 조선인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조선인들의 총독부에 대한 반감은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3·1운동(1919), 강우규 의거(1919,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투척), 김익상 의거(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김상옥 의거(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6·10만세운동(1926), 나석주 의거(1926, 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등으로 표출되었다.

조선박람회 행사 기간 중인 1929년 10월 2일, 중국의 고려공산당에서 파견한 50세 정도의 남성이 폭탄을 보따리에 감추고 박람회장 안에서 터뜨리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동아일보, 1929년 10월 3일, 3면). 또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조선박람회를 노린 조선인들의 계획은 「六十餘種 不穩文과 爆彈拳銃도 押收」(동아일보, 1929년 5월 18일 3면), 「拳銃과 爆彈携帶코 共鳴團 潛入說」(동아일보, 1929년 6월 1일, 3면), 「朝鮮博覽會를 機會로 高麗共産員潛入」(동아일보, 1929년 7월 2일, 3면), 「高麗共産黨直接派 爆發彈携帶 潛入」(동아일보, 1929년 9월 15일, 3면), 「爆彈事件連累 斷髮美人檢擧」(동아일보, 1929년 9월 22일 3면), 「朝鮮博覽會를 目標로 한 不穩計畫 情報摘錄」(경무국 보안과,

1929년 6월), 「거두의 암살과 건물의 파괴(巨頭の暗殺や建物の破壊)」(경성일보, 1929년 11월 3일, 4면)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선인들의 박람회에 대한 움직임은 조선총독부가 야간 개장을 실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선박람회와 비슷한 시기인 1928년 9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개최된 '대례봉축 나고야박람회(御大典奉祝名古屋博覧会)'의 야간개장 시간이 9월 1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名古屋勧業協会編, 1929).

조선총독부 시정 20년간의 통치 실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정(善政)'의 장을 계획했던 조선총독부에게 조선박람회는 조선인들로 인해 시정 20년간의 '악정(惡政)'을 폭로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Ⅲ. 조선박람회의 주인공

조선박람회의 중요성은 시정20년 기념 조선박람회를 위해 일본의 '쇼와천황(1901~1989)'을 대신해 일본의 왕족으로는 드물게 육군의 최고수뇌부인 참모총장까지 역임(1931~1940년)했던 간인노미야 고토히토(閑院宮載仁, 1865~1945)가 조선박람회에 참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15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에도 '다이쇼천황'을 대신해 전시장에 참석한 간인노미야는 '쇼와천황'이 황태자 시절인 1921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방문에 황태자와 동행하며 일거투일투족을 보살핀 인물이기도 하다. 일본 왕족 중 유일하게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조선 행사에 참석한 간인노미야는 이미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청일전쟁에 육군대위로 참전하며 압록강 부근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펴보아도 일본 왕실에서 조선을 직접 체험한 대표적인 '조선통'이자 '쇼와천황'을 대신할 적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박람회에 참가한 간인노미야는 박람회 행사 참가는 물론 금강산, 조선 각지를 돌며 조선총독부의 '선정'을 체험하였다.

조선박람회의 규모면에서는 10만여 평에 달하는 경복궁 부지에 1만 7천여 평의 전시관을 건축해 조선총독부 시정 20년의 발전상을 대표하는 21,428점의 품목을 전시하였다. 조선박람회는 조선물산공진회의 2배, 전시관의 세분화,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부터 방대한 물품이 출품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행사였다.

전시장은 가장 규모가 컸던 일본관(1,437평)을 비롯해 산업남관, 산업북관, 쌀의 관,

육군관, 해군관, 조선 13도의 전시관과 함께 연예관, 야외극장, 어린이 나라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조선박람회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박람회를 취재한 조선일보 사회부장 유광렬(1898~1981)의 글을 살펴보기로 하자.

> "朝鮮人의 出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쌀봉지, 좁쌀봉지, 과실 몃 개, 말른 고기 멋 마리를 出品하지 안은 건 아닙니다. 水利組合이 되어 土地가 開拓되는 것도 事實이요, 길이 넓어지고 警察이 밝아지고 裁判이 文明式으로 된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事實에는 明白한 矛盾이 潛在하여 잇습니다. 朝鮮人이 前記와 가튼 出品이 잇는 反面에 朝鮮에 와잇는 日本人의 出品이 더욱 隆盛하며 朝鮮人은 손도 대어보지 못한 鑛業, 林業, 大規模의 工業에 對한 것은 모다 日本人의 손으로 되지 안앗는가. 一言以蔽之하면 이 땅에서 연 朝鮮博覽會는 當然히 朝鮮人이 그 主人公이 되어야 할 것이어늘 이와 反對로 日本人이 主人公이 되엇스니 主客이 顚倒되지 안앗는가. 水利組合이 되어 土地가 開拓되는 反面에 幾多의 小中農이 組合費에 못견듸어 祖先傳來의 땅을 팔고 離鄕의 哀歌를 부르지 안앗는가. 찬밥덩이를 싸가지고 다니며 닥가노은 길에 自動車 타고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잇지 안은가(유광렬, 1929)."

유광렬은 1926년 5월 조선총독부·경성부·조선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최된 조선박람회에서도 전시된 물품의 대부분이 일본인이 제작한 것으로 배치되었으며 조선인이 제작한 것은 수공업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유광렬, 1926).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 역시 공업화로 생산된 물품은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조선인은 1차 산업에서 수확한 물품만을 전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박람회의 주인공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었으며 조선인은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이 제작한 물품이 대부분 전시된 '주객이 전도'된 조선박람회는 조선과 일본 각 지역에 배당된 전시관 면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시관 중 조선에 배당된 면적은 경기도(315평), 충청북도(30평), 충청남도(46평), 전라남도(207평), 전라북도(122평), 경상남도(115평), 경상북도(104평), 평안남도(124평), 평안북도(88평), 황해도(50평), 함경남도(174평), 함경북도(67평), 강원도(43평)의 총1,485평과 조선총독부 직영관으로 조선의 각 지역의 물품을 한 곳에 전시한 525평의 심세관까지 합하면 2,010평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규슈 및 오키나와(410평), 오사카(320평), 도쿄(300평), 교토(211평), 홋카이도(122평), 나고야(100평), 시가(82평), 히로시마(66평), 미에(52평), 나라(35평), 기후(12평), 나가사키(12평)의 총1,722평, 지역관을 설치하지 않았던 일본 기타 지역의 물품을 전시했던 일본관 1,452평을 합한 3,174평이나 차지했다. 게다가 미쓰이관(120평), 미쓰비시관(125평), 스미토모관(80평) 등 일본의 민간 기업체에도 넓은 면적의 전시관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개최한 박람회가 조선관에 배정한 면적을 살펴보면 '은혼식봉축 국산

공진회' 80평(1925년), '시정 10년 기념 국산공진회' 40평(1926년), '대례기념 국산진흥 도쿄박람회' 141평(1928년), '전국산업박람회' 80평(1931년) 등으로 조선박람회가 일본의 한 지역에 배정한 면적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를 제공하였다. 이는 조선박람회가 조선총독부 시정 20년간의 조선의 산업 발전을 대내외에 전시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 일본 산업의 식민지 확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박람회를 둘러싼 '주객전도'의 지배 구조는 조선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전라북도의 조선박람회 참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Ⅳ. 조선박람회와 전라북도

1. 자발과 강제

조선박람회에 앞서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와 전라북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조선물산공진회 참가를 위해 전라북도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라북도협찬회를 조직하였다. 협찬회는 신문지상과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 전라북도의 농업, 상업, 기타 각 방면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협찬회에는 도내 유지 2,600여명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회장에는 한일강제병합 이전에는 경찰서장, 이후에는 전라북도 내무부장을 역임했던 오쿠보 이타루(大久保到)가, 부회장에는 전주재무서장, 익산군수, 주식회사 전주농공은행 감사를 맡고 있었던 신태빈(辛泰斌)이 맡고 있었다. 협찬회의 대부분의 회원은 일본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조선인들은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박람회와 전라북도협찬회의 상세한 관계를 확인할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선박람회를 준비하는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도한 매일신보 1929년 7월 1일 신문기사 「조선박람회 전주 임원(朝博全州役員)」은 전북 도지사, 참여관, 내무부장, 경찰부장, 재무부장의 5명의 행정관료와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오키 료사쿠(大木良作), 하시모토 나카바(橋本央),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 가타기리 가즈미(片桐和三), 모리기쿠 고로(森菊五郎), 마쓰오카 다쿠마(松岡琢磨), 마쓰바 시치헤(松波千海), 박기순(朴基順), 박희옥(朴禧沃), 박흥규(朴興奎), 홍종철(洪鐘徹), 문종구(文鐘龜), 고붕규(高棚規)의 14명의 민간인이 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전주 임원'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임원으로 선출된 민간인들의 지역기반을 살펴보면, 전주(오키, 마쓰바, 박기

순), 군산(아카마쓰, 모리키쿠, 마쓰오카, 문종구), 익산(이마무라, 가타기리), 김제(하시모토), 남원(박희옥), 정읍(박흥규)으로 전주가 아닌 전라북도 임원임을 알 수 있다.

조선박람회를 준비한 전라북도 임원 중 조선인들의 경우, 산업과 관련된 인물이 아닌 지역과 중앙 관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박기순, 박희옥)로 이루어졌다. 전라북도에 정착한지 20여년이 지나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일본인 임원들[3]의 직업을 살펴보면 상업(아카마쓰, 오키), 농업 및 미곡상(하시모토, 이마무라, 가타기리, 모리기쿠), 언론(마쓰오카, 마쓰바)으로 농업과 관련된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에 관련된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협찬회 임원진 구성으로 미뤄 조선박람회의 전라북도관이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화학 공업이 활발했던 함경남도, 2차, 3차 산업이 활발했던 경기도(경성), 공업과 무역이 중심을 이루었던 경상남도(부산)을 제외한다면 다른 지역의 지역관 또한 전라북도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이 1차 '수공업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조선박람회 전라북도협찬회의 활동으로 박람회를 참관한 전라북도 지역의 관람객 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물산공진회의 경우 전라북도는 2,500여명의 공식관람단(조선인: 2,300명, 일본인: 200명)을 파견하였다. 공식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으며 전라북도협찬회 회원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박람회를 준비하는 전라북도는 활발한 모집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했다. 조선박람회를 위해 관람객을 모집하는 「朝博視察募集 全北協贊會」(매일신보, 1929년 7월 2

3) *아카마쓰 시게오(赤松繁夫, 1876~): 1904년 군산에 정착했으며 간장, 주류업을 중심으로 부를 일구었다. 군산상업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였다.
*오키 료사쿠(大木良作, 1884~): 1898년 부산에 이주, 1907년 전주에 정착한 오키는 잡화상, 철물점, 자동차 판매업을 하였으며 전주상공회 회장, 전주비료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하시모토 나카바(橋本央, 1865~): 1906년 군산에 정착했으며 무역업과 정미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김제에 하시모토 농장을 경영했으며 전북축산주식회사 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마무라 이치지로(今村一次郎, 1874~): 일본에서 소학교 교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이마무라는 1906년 익산 춘포의 대장촌에 정착해 이마무라 농장을 경영하였다. 벼농사에 일본 품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농장과 소작인들에게 비료보급, 가미니 제조를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전남 장흥에서 간척사업을 통해 방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북산업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가타기리 가즈미(片桐和三, 1878~): 1906년 익산 황등에 정착해 농장을 경영하였다. 벼품종 개량, 자급비료의 증산에 노력하였으며 임익수리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모리기쿠 고로(森菊五郎, 1876~): 1904년 군산에 정착해 모리기쿠 농장을 경영하는 한편, 미곡 무역, 정미업에 매진하였으며 군산미곡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마쓰오카 다쿠마(松岡琢磨) 군산일보 사장
*마쓰바 시치헤(松波千海, 1888~): 1907년 군산에 이주하였으며 군산일보 기자를 거쳐, 전북일일신문 사장, 전북일보 사장, 전북국방연구회 회장, 전주국방협회 회장, 전주번영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일, 3면), 「申請者가 벌써 八千三百餘名-朝博全北觀光團」(매일신보, 1929년 7월 26일, 3면), 「全北朝博視察申請 三萬餘名」(매일신보, 1929년 8월 1일, 3면)이란 기사에서 대대적인 모집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한 관람인원은 지역별 단체(50인씩 200단체)와 교육기관(약 10,000명), 개인(약 5,00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원은 총35,000여명에 이르렀다. 조선박람회 개시 2주 후인 9월 26일 매일신보는 「全北道各郡의 朝博視察團 一萬五千餘名」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관청 및 학생을 제외한 전라북도의 조선박람회 관람인원이 15,493명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주 2,364명(37단체), 익산 2,257명(26단체), 김제 1,296명(22단체), 옥구 1,165명(34단체), 고창 862명(23단체), 남원 855명(17단체), 부안 735명(26단체), 금산 658명(20단체), 군산 600명(3단체), 진안 589명(7단체), 임실 580명(19단체), 순창 549명(23단체), 무주 526명(18단체), 장수 500명(16단체)이다.

군산의 경우, 군산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5,000여명을 모집하기도 했으며 박람회 당시 경성방송국 라디오 방송에 10월 1일, 10월 2일 이틀간 군산을 알리는 방송을 협의 중일 만큼 박람회에 적극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전주의 관람객보다 훨씬 많은 군산 지역민(일본인 중심)이 박람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朝博을 기회로 群山事情放送」, 매일신보, 1929년 9월 20일, 3면).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에 참가한 40,000여명의 전라북도 지역민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제성 또한 동반했음을 다음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경남 울산군 언양면 일대에는 가뭄의 피해가 타 군보다 우심하여 인심이 날로 흉흉하여지며 일반 세민들은 추석도 남같이 못 쉬는 이때 언양면에서는 일찍부터 박람회 관광단 모집에 착수하야 동면 서기들이 각 동리를 돌아다니며 노력하였으나 이십 명의 삼분지일도 응모자가 없어서 모집에 적지 않은 곤란을 느끼는바 모 면에서는 14개 구장을 단원으로 편입시켜 그 여비 이십 원씩은 재산등급에 따라 기허식을 부과시켜 19일에 14동 중 7동 구장이 동면장의 인솔로 제1대가 출발하였다는데 일반 동민들은 한재 영향으로 추석도 번번히 쉬지 못하고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묘연하여 날로 불안 중에서 헤매고 있음에 불구하고 구장의 관광 여비를 세민들에게 지급케 함은 과중한 부담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하여 면당국의 무리무자비한 처리에 불평과 비난이 높다더라(조선일보, 1929년 9월 24일)."

전라북도의 경우 조선박람회의 관람을 강제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지역의 경우, 자발적인 관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던 장수, 무주, 순창의 경우, 관람은 대부분 조선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교통비, 숙박비 등 모든 경비는 자비와 함께

지역 조선인들이 부담했을 것은 명확하다. 조선총독부 시정 20년의 통치를 홍보하는 조선박람회에 지방행정관청과 관변단체의 '강제'에 의해 참가한 지역민들은 '주객이 전도'된 행사를 장식한 소품들이었다. 그렇다면 '자발'과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박람회의 전라북도관과 출품된 물품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지역지배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2. 변화와 불변

조선박람회 배치도(왼쪽)를 살펴보면, 출입구인 광화문을 통해 박람회장으로 들어가면 메인 전시장인 산업북관, 산업남관, 쌀의 관 등이 경회루 전면에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전시장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어린이 나라가 위치해 있었다.

조선의 각 지역관은 박람회장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으며 충청남도관, 강원도관, 경기도관의 경우 입구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어 관람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 전라북도관의 경우 배치도의 오른쪽 가장 위쪽에 배치되어 거리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였다. 또한 전라북도관은 일본관(1,452평), 나고야관, 규슈관과 박람회 행사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연예관에 근접해 있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조선박람회 배치도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 1930)	조선물산공진회 전라북도관 (朝鮮總督府, 1916)	조선박람회 전라북도관 (門田房太郎, 1929)

<사진 1> 조선물산공진회 전라북도관(1915)과 조선박람회 전라북도관(1929)

조선박람회 전라북도관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때 개설된 전라북도관을 보기로 한다. 1915년 10월 16일 매일신보의 기사 「始政5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4) 審勢館開館」에 의하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 참가한 전라북도관(가운데)은 전라북도(전라도)을 대표했던 풍남문 모형에 도내 주요 5대 사업인 농업, 어업, 축산, 임업, 잠업 생산품을 장식하였다. 풍남문 용마루에는 혁피(革皮)와 연초, 생강, 김으로 장식,

석단은 제지원료, 임산물로 장식했다.

하지만, 1929년 조선박람회의 전라북도관(오른쪽)은 파빌리옹(Pavilion) 양식의 근대적이며 이국적인 건물(122평)로 전통과는 동떨어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박람회의 공식 포스터에서도 확인했듯 조선박람회는 전통적인 조선의 이미지를 강조했던 조선물산공진회와는 거리를 둔 근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라북도관에도 적용되었다. 지방색을 반영해 평양의 현무문을 미니어처 한 평안남도관, 미륵보살 입상으로 입구를 장식한 충청남도관을 제외하면 조선의 모든 지역의 전시장이 전통양식과는 거리가 먼 파빌리옹 양식으로 꾸며졌다. 더 이상 조선의 전통적인 이미지의 강조보다는 조선총독부 통치를 통해 근대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조선 지역을 알리고 있다.

조선박람회에 1,300여점을 출품한 전라북도는 농업(52), 미곡류(232), 광업(7), 수산(158), 면작(74), 제작공업(155), 화학공업(82), 염직공업(122) 등을 중심으로 전시했다. 조선박람회에 출품한 다른 지역을 보면, 경기도(1,565), 충청북도(766), 충청남도(943), 전라남도(943), 경상남도(2,070), 경상북도(2,388), 평안남도(1,746), 평안북도(1,109), 황해도(1,147), 함경남도(1,153), 함경북도(933), 강원도(1,293)로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경상북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경기도 지역에 이어 5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수의 물품을 출품하였다.

전라북도관 내부(오른쪽-좌)를 살펴보면 전주, 남원의 특산품인 부채 제조과정을 장인이 직접 시연하기도 했으며, 지역 물산의 통계수치의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림과 도표로 그려놓은 판넬을 장식하기도 했다. 특히 쌀[米]이라고 쓴 성곽 모형과 위쪽에 있는 인형을 향해 만세를 외치는 양반과 부인, 농민, 일본인(검은 옷) 인형이 돋보인다. 위쪽 인형의 손에는 '2백만'이라는 깃발이 걸려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한해 수확한 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910년 전라북도의 쌀 생산량이 78만석, 1920년 142만석, 1925년 182만석, 1927년 202만석, 1930년 215만석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토지개량과 수리시설의 확충, 품종개량이 이루어져 쌀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홍보하고 있다(全羅北道, 1931).

전라북도에서 출품한 각 부분별 세세한 품목은 현재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쌀, 콩 등을 포함한 미곡류와 구두, 기와, 비누와 미곡류를 원료로 제조한 간장, 주조 등 경공업 생산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차지했다.

중화학 공업을 대표하는 조선비료주식회사, 조선수력발전 주식회사, 이원광산의 3대 기업의 모형을 정면에 배치한 함경남도관, 자본주의를 상징하였던 미쓰코시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 등을 전시한 경기도관과 비교해 전라북도관은 조선물산공진회

로부터 14년이 흐른 1929년 전시장 겉모양은 근대적으로 '변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산업은 '불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박람회가 조선 각지의 물품을 대상으로 선정한 수상작 중, 전라북도의 물품 211종을 분석해 보면 조선총독부의 지역 지배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Ⅴ. 농촌의 식민지화

농업, 어업, 축산, 임업, 잠업으로 대표되는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조선시대 이후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이중 농업이 중심을 이룬 전라북도의 토산과 진공(進貢)은 한일강제병합으로 제지를 활용한 산업(한지, 태문지, 지우산, 부채 등)이 도쿄다이쇼박람회(1914), 쇼와박람회(1929) 등에 출품되며 전라북도를 알렸다. 이는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가 2, 3차 산업으로 다양화·발전의 의미보다는 전통적인 1차 산업의 홍보를 통해 조선전역, 일본 및 해외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조선박람회에 미곡류와 농업 생산물을 중심으로 전시한 전라북도는 심사결과 최고상인 명예금패2, 금패 5, 은패 29, 동패 78, 표창 97을 수상했다. 조선총독부의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1, 출품의 완성도 및 사업 조직, 규모, 생산액, 경영방법 및 성적, 2, 수이출(輸移出)의 증진 상 효과여부, 3, 수이입품(輸移入品) 방지 효과여부, 4, 생산방법의 참신한 개량 여부, 5, 신발명 및 고안 여부, 6, 조선 산업 및 문화 개발상 효험여부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심사기준은 대부분이 생산과정과 생산량으로 대표되는 결과가 상위 기준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예금패에는 현미(玄米)를 출품한 김제 하시모토 농장, 임익수리조합의 수리조합 경영법이, 금패로는 가마니(김제군 농회), 봄누에(순창 김학현), 수리경영(동진수리조합)등이 차지했다. 명예금패를 수상한 임익수리조합과 현미, 금패의 가마니, 수리경영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농업형태로 조선총독부가 통치 20년간 추진한 강력한 정책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통치 초기 총독부의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산업인 농업에 대해 전라북도협찬회는 한일강제병합 이전 전라북도의 농업을 '물이 있으면 경작, 없으면 방관하며 자연에 의지'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全北日日新聞社, 1914). 이러한 지적은 전라북도협찬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조선박람회

전라북도 수상자·단체 중 수리시설과 관련된 곳이 다수를 차지한 것에서도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자연적인 환경에 의지한 조선의 농업은 모든 지역에 통용했으며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벼농사 지역인 전라북도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그들의 정책을 시행하기에 최적의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농업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개시설의 정비로 농업용수를 확보함으로써 '자연에 의지' 하지 않는 농업이 전제조건이었다. 이는 1910년 전후 조선에 관개용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워진 수리조합 7곳 중 5곳이 전라북도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4)]

조선 농업의 개혁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의도는 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일보는 조선박람회 기간 중 2회에 걸친 전라북도 특집기사를 보도하며 '조선 반도에 보기 드문 농업적지, 쌀의 왕국, 수리사업-조선 최고의 임익수리'(1929년 10월 5일), '전북평야는 수리사업의 본고장, 주력을 쏟는 보통농사의 개량, 비료에서는 호남 최고'(1929년 10월 10일) 등의 기사를 통해 전라북도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의 성공을 조선 전역에 홍보하고 있다.

수리시설 등 농업 인프라를 구축한 조선총독부는 생산량 확대를 위해 벼 품종의 개량과 적극적인 비료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조선의 재래 벼 품종은 서서히 사라져 갔다. 조선박람회의 전시장을 보면서 일본에 의해 변해가는 조선, 농업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 "쌀은 신력종 닭은 나고야종으로 모다 일본 명칭으로 변한 것은 물론이며 만치 못한 조선 사람의 제품들도 대개는 일본향으로 또 일본식으로 표현된 것이 만아 날갓치 늘근 안목에는 이것이 모다 일본서 건너온 것갓치 뵈임니다. 그 밧게 동경, 대판이 들끌러오소 구주, 경부 기타 내지라 하는 일본판이 그대로 건너온 것 갓치 진열되어 우리의 생활환경을 날로 에여 싸고 잇는 줄을 알아 보앗스며 그러면 조선 사람은 어듸서 무엇을 하여 먹고 사는가가 새삼스리 의심이 낫습니다(『新民』, 제53호, 1929, 11월호)."

1929년 조선박람회의 전라북도 공식 가이드북의 역할을 했던 『전북 안내(全北の栞)』에도 "전북의 쌀로 조신력, 곡량도, 고천수, 다마금, 석산조(石山租), 기내조14호(畿內早十四號)의 6종을 장려해 수전 70만 정보에서 200만석을 돌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연에 의지'해야 했던 조선의 벼 품종은 서서히 사라져 갔으며 일본의 벼 품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수리시설을 이용한 벼 생산량의 증대와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우량품종으로

4) 임익(臨益, 1908), 옥구서부(沃溝西部, 1909), 전익(全益, 1910), 임익남부(臨益南部, 1910), 임옥(臨沃, 1911)

자리매김한 일본의 벼 품종의 확산은 전라북도 지역 농촌의 식민지화로 이어졌다(이정욱, 2016). 이후, 전라북도가 조선의 대표적인 미곡 생산지로 명성을 이어간 배경에는 조선총독부가 시정 20년간 추진했던 “높은 우량품종 식부율”과 “수리시설 등의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소순열, 2002).

Ⅵ. 결론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는 일제강점기 36년의 통치기간 중 조선총독부 전반부의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의 일환이었다.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가 한일강제병합 이전과 이후의 비교와 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929년 조선박람회는 비교와 대조를 뛰어 넘어 조선총독부의 통치로 조선의 경제적인 발전상과 희망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발전과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찬 시정 20년의 시간은 일본·일본인과 일부 조선인들에게 국한되었을 뿐, 대다수의 조선인에게는 쇠퇴와 절망의 시간이었다. 조선박람회를 둘러싼 조선인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한정된 전시장 개장 시간은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를 인정하려하지 않은 조선인들이 존재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조선박람회의 조선과 일본의 각 전시관의 분석을 통해 ‘주객이 전도’된 조선총독부의 지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선박람회 전라북도협찬회의 임원진 구성을 통해서는 지역 경제계의 지배 구조가 일본인들에 의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역협찬회에 의해 강제적으로 박람회에 동원된 지역 조선인들은 조선총독부라는 거대 권력의 통치는 물론 지역의 권력 통치에 의해 이중적인 지배구조에 의해 억압받는 존재였음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총독부의 통치 지배구조가 객체였던 일본·일본인이 주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객체로 전략한 조선·조선인의 존재를 조선박람회에 내재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박람회에 내재화된 또 하나의 지배 구조가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쌀의 왕국’ 전라북도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0년대부터 실시된 수리시설 인프라 정비를 통해 토지개량과 농업개량을 이루었으며 일본의 부족한 미곡을 공급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다했다. 또한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일본제국주의(조선총독부)의 성공적인 시험장 역할을 담당한 곳이 전라북도였으며 이를 입증한 무대가

조선박람회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박람회에서 전라북도관이 홍보했던 '놀랄 만한 생산성의 증가'로 얻어진 "2백만"의 미곡 생산량은 1930년대 조선인들에게는 1930년대 "놀랄 만한 빈곤의 증대"를 의미하기도 하였다(林炳潤, 1971). 전라북도의 농업구조의 변화는 '놀랄 만한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 대아저수지 완공(1922), 불이흥업주식회사 간척사업(1923), 동진수리조합 설립(1924), 운암저수지 완공(1928), 운암 수력발전소 가동(1931), 군산비료 주식회사 설립(1936)으로 이어졌지만, 지역 농민들의 수리조합사업 반대와 소작쟁의는 1930년대 중반 최고조에 다다랐다.

본 연구는 조선박람회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와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였기에 전라북도의 농업 기반 인프라의 정비 등 일련의 과정은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KCI

【참고문헌】

남기웅(2008), “1929년 조선박람회와 ‘식민지 근대성”,『동아시아문화연구』, 43: 179.

소순열(2002), “일제하 전북 농촌인구 유출구조”,『농업경영·정책연구』, 29(1): 94.

신주백(2004),『박람회-과시·선전·계몽·소비의 체험공간』, 서울: 역사비평.

유광렬(1926), “조선박람회를 보고”,『개벽』, 70(6), 서울: 개벽사.

_____(1929), “무슨 評을 하리까”,『新民』, 53, 서울: 신민사.

요시미 슌야 저, 이태문 옮김(2004),『박람회 근대의 시선』, 서울: 논형.

이각규(2010),『한국의 근대박람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정욱(2016), “조선총독부 지역지배의 식민지성”,『아시아문화연구』, 41: 189.

주윤정(2003), “조선물산공진회(1915)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최석영(1999), “조선박람회와 일제의 문화적 지배”,『역사와 역사교육』(3·4).

李泰文(2003), “1915年『朝鮮物産共進会』の構成と内容”,『言語·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30: 59.

齋藤實(1929), “博覽會彙報”, 서울:『朝鮮』, 173: 326.

全北日日新聞社(1914),『全羅北道案內』, 전북: 全北日日新聞社.

全羅北道(1931),『全羅北道要覽』, 전북: 全羅北道.

全羅北道協贊會(1929),『全北の栞』, 전북: 全北教育及産業社.

高柳光壽(1968),『日本史辭典』, 일본: 角川書店.

朝鮮總督府(1916),『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1～3卷』, 서울: 朝鮮總督府.

名古屋勧業協会編(1929),『御大典奉祝名古屋博覧会総覧』, 일본: 名古屋勧業協会.

門田房太郎(1929),『朝鮮博覽會記念寫眞帖』.

林炳潤(1971),『植民地における商業的農業の展開』, 일본: 東京大学出版会.

“全北道各郡의 朝博視察團 一萬五千餘名”,『매일신보』(1929년 9월 26일): 3.

“朝博을 기회로 群山事情放送”,『매일신보』(1929년 9월 20일): 3.

“始政5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4) 審勢館開館”,『매일신보』(1915년 10월 16일): 1.

Structure of the Local Rule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hosun Exhibition and Jeollabuk-do*

Lee, Jung Wook**

Abstract: In this study, considered local rule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round Chosun Exhibition and Jeollabuk-do held in Korean Keijo in 1929. The Chosun Exhibition full of development and hope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for limited people. It was the decline and a thing of the despair for many Koreans. I proved the existence of the Korean who did not want to recognize the rule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t the resistance of the Korean who got up over Chosun Exhibition and limited opening time. The nominative case was able to identify local rule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fallen down as Korea of the Chosun Exhib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ach pavilion of Japan. In addition, I understood that structure of the rule of the local economic world was opened in the people of the support society of Jeollabuk-do through constitution by a Japanese.

Another structure that it was inherent in for Chosun Exhibition was performed mainly on local industry. Jeollabuk-do played a role as the base of the Japanese food through maintenance of the agriculture infrastructure enforced in the 1910s by Korea Presidential Office. Jeollabuk-do that built the infrastructure for rice produced in increase plans of the 1920s was in charge of the role of the successful test site of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t was Chosun Exhibition that proved this again. However, the increase of the surprising amount of production of rice led to increase of the surprising poverty to a Korean in the 1930s.

Key Words: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lony, Chosun Exhibition, Jeollabuk-do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B8063617).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in Korea, Jeonju Univ.
(Email: jukkoo@hanmail.net)